

학대받는 노인 매년 100명 넘어... “관심 절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고령사회 제주 노인학대 현황은 가해자 대부분 ‘아들·배우자’... 지난해 중복학대 급증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노인의 존엄성 인정해야”

제주에서 매년 100명이 넘는 노인이 가정 또는 시설에서 학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14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567건으로, 이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피해노인 수는 3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870건·128명(신고건수·피해노인 수, 이하 생략), 2024년 908건·132명, 2025년 789건·127명 등이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가정 내 328건, 시설(생활시설·이

용시설) 45건, 병원 2건, 공공장소 8건, 기타 4건 등이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아들과 배우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 행위자 416명 중 아들과 배우자는 각각 133명, 110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기관’ 관계자에 의한 학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2023년 3건, 2024년 4건, 2025년 61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학대피해노인 4명 중 3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 통계를 제외하면 2023~2024년 노인학대 피해자 중 여성은 194명(74.6%), 남성은 66명(25.4%)으로 약 세 배가량 차이가 났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신체적



학대 329건, 정서적 학대 316건, 성적학대 5건, 경제적 학대 28건, 방임 162건, 자기방임 21건, 유기 2건 등이다.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중복학대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중복 집계한 최근 3년간 학대건수는 2023년 214건, 2024년 225건, 2025년 424건 등이다.

이처럼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이화선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노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노인학대 예방이 시작된다”며 “더불어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관심이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2027년 10월까지 휴관

한라도서관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연계한 시설 개선공사로 7월1일부터 2027년 10월까지 전면 휴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휴관은 한라도서관 리모델링과 함께 도시공원 내 한라도서관 주차장 일대 전면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도서관 시설 전체 이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휴관 기간에도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대체 공간을 활용해 이어간다.

도서 대출·반납은 제주꿈바당이 린이도서관 별동인 제주여관에 임시 자료실을 마련해 예약대출 방식으로 운영한다.

희망도서 신청과 서점바로대출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책·오디오북 등 비대면 독서서비스도 기존과 같이 제공한다.

아울러 도민들이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야외형 책 읽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우리는 떠나지만...” 교육위원들의 소회

제12대 제주도의의회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서 김창식·오승식·정이운 교육위원 당부 전하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던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교육위원들이 그간의 소회를 꺼냈다. 12일 열린 제12대 제주도의의회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다.

제주도의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4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오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둔 12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제주 교육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부터 교육위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3대 제주도의의회에는 교육위원 자리가 없어진다. 김창식(제주시 서부)·오승식(서귀포시 동부)·정이운(서귀포시 서부) 교육위원도 임기를 마치고 의회를 떠난다.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고의숙(현 제주도교육감 당선인)·강동우(제주도의원 당선인) 전 교육위원까지 5명은 역대 ‘마지막 교육위원’으로 남게 된다.

김창식 교육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일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그 때문에 지금 제주 교육은 잘 되고 있다”면서 “전국 어느 교육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주 교육을 일으킬

분들은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잘해야만 제주 교육이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기도 했다.

정이운 교육위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떠올리며 “‘생생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 수정할 부분이 있지만 다들 지지 못하고 떠난다”며 “소관 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넣어야 할지 잘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2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맡아온 오승식 교육위원은 교육위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우리는 가지만 앞으로도 교육을 위해 열심히 성원해 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대학생·청년 알바생 194명 제주시, 18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가 이달 18일까지 2026년 하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94명을 모집한다.

일반 모집인원은 186명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주시 분청,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돼 행정지원 업무, 현장조사 등 부서별 현안 업무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내·외 대학생(휴학생 포함)과 19세~39세(1986~2007년) 청년이다. 다만, 최근 1년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대상자는 이번 모집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제주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전화 064-728-2044)로 문의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개장 준비하는 해수욕장 13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개장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직업계고 학생들 호주 시드니로 떠난다

6개교 학생 11명 해외인턴십 제주시 지역 직업계고 학생 11명이 해외인턴십에 나선다. 이들 학생은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현지에서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인턴십에는 도내 직업계고 6개교 학생 11명이 참여한다. 서류 전형, 필기시험 등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인원이었다. 이들 학생은 오는 10월에 호주 시드니로 떠날 예정이다. 이후 11월까지 4주간 영어연수와 전공 직무연수에 참여한다. 연수는 서비스, 조리, 미용, 정보기술, 기계정비 등 분야의 현장 실습으로 운영된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6

2026. 6. 24.(수) - 26.(금) |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제주돌문화공원

REINVENTING 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